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2018. 5. 8. (화) / 총 16매(본문 13, 붙임3)
<b>담당 부서</b>	주택정책과	<b>주택정책과</b>	• 과장 김영국, 사무관 임유현, 주무관 노정호 • ☎ (044) 201-4129, 3336
	국토연구원	<b>주택정책 연구센터</b>	• 연구위원 강미나, 김지혜 박사, 이건우 연구원 • ☎ (044) 960-0349, 0331, 0318
<b>보도일시</b>		2018년 5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5.8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「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」 발표

### -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-

#### □ '17년 일반가구 조사결과

- 자가점유율 57.7% 및 자가보유율 61.1%
-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(PIR) 5.6배
-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(RIR) 17.0%
-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6.8년
- 내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 82.8%
- 평균 거주기간 8.0년, 자가가구는 11.1년, 임차가구는 3.4년
-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5.9% 및 1인당 주거면적 31.2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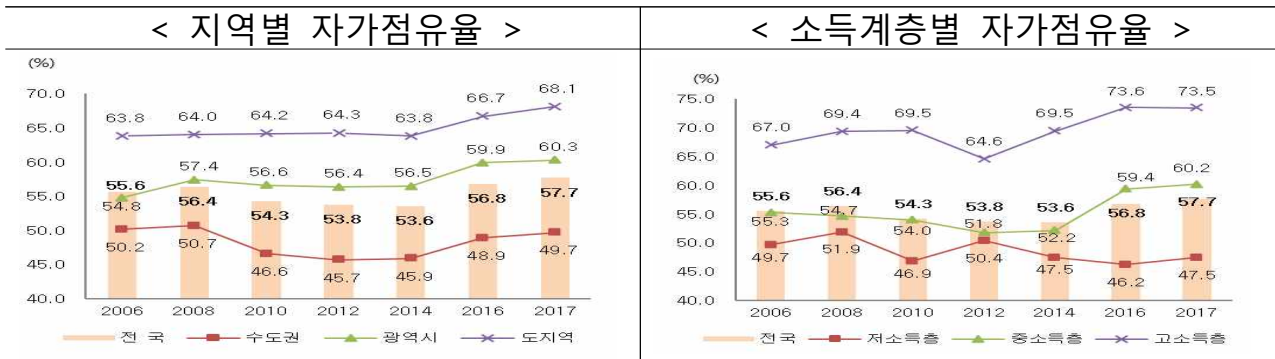
#### □ '17년 특성가구 조사결과

- (청년) 절반이상(53.8%)이 월세에 거주하고, 전월세자금 지원 희망
- (신혼) 전세비중(34.2%)이 높고,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희망
- (노인) 대부분 자가(75.3%)에 거주하고, 주택 개량·보수 지원희망
- (저소득) 월세비중(35.8%)이 높고, 공공임대·전월세자금 지원 희망

# 1. 주거 안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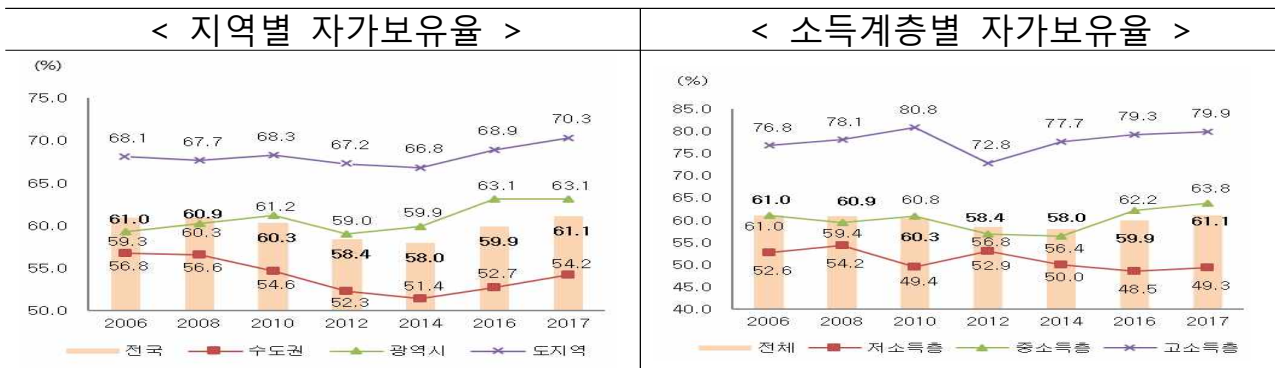
□ (자가점유율) '17년 '자가'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.7%로 '16년 56.8%에 비해 0.9%p 증가하였다.

-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'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  - \* (수도권) 48.9% → 49.7% , (지방광역시) 59.9 → 60.3, (도지역) 66.7 → 68.1
- 소득계층별로는 저·중소득층은 '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,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\* (저소득층) 46.2% → 47.5%, (중소득층) 59.4 → 60.2, (고소득층) 73.6 → 73.5



□ (자가보유율) '16년 59.9%에서 '17년 61.1%로 1.2%p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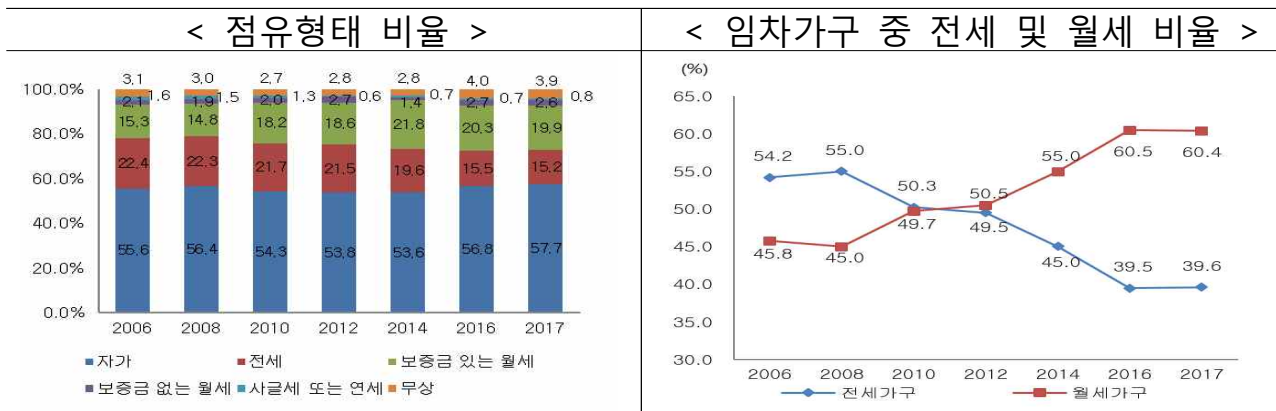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 및 도지역은 '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지방광역시는 '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.
  - \* (수도권) 52.7% → 54.2%, (지방광역시) 63.1 → 63.1, (도지역) 68.9 → 70.3
-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\* (저소득층) 48.5% → 49.3%, (중소득층) 62.2 → 63.8, (고소득층) 79.3 → 79.9



□ (점유형태) '17년 점유형태는 '자가'(57.7%), '보증금 있는 월세'(19.9%), '전세'(15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

○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\*가 차지하는 비중은 '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, '17년에는 정체되어 60.4%를 나타냈다.

\* 임차가구에 무상가구는 제외되며, 월세가구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, 보증금 없는 월세, 사글세, 연세, 일세가 포함됨



## 2. 주거비 부담

□ (PIR) '17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(Price Income Ratio)는 전국 5.6배(중위수)로, '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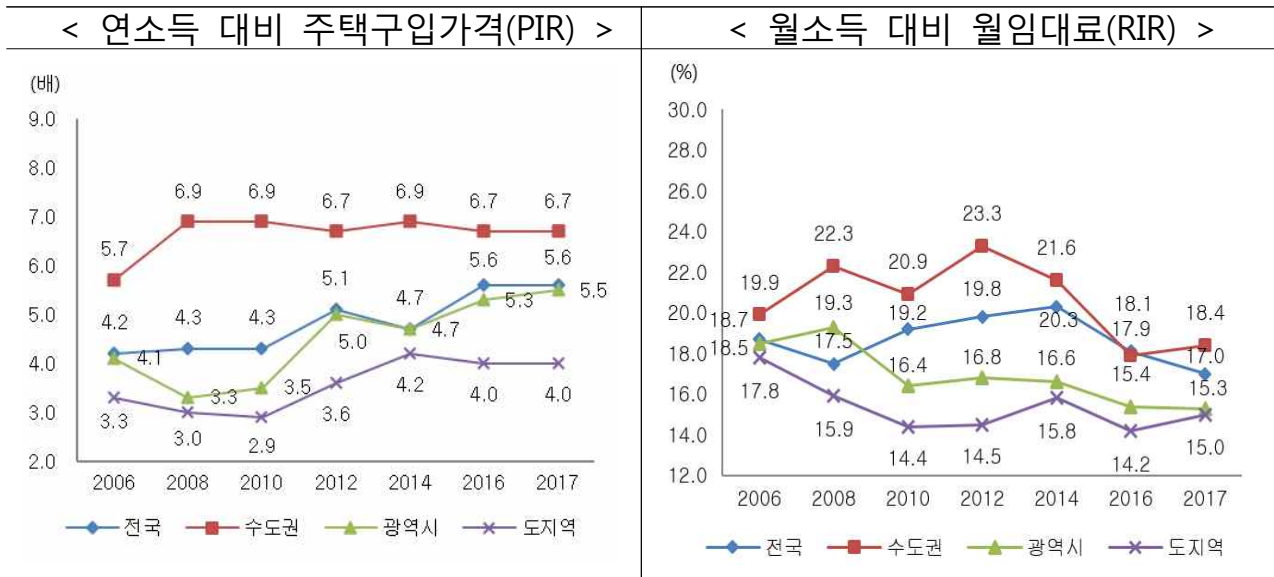
○ 수도권이 6.7배로 광역시(5.5배)와 도지역(4.0배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\* 평균값 기준으로는 '17년 PIR은 도지역을 제외하고 소폭 증가하였음  
(전국) '16년 6.3→'17년 6.4배, (수도권) 7.6→7.9, (광역시) 5.7→5.8, (도) 4.7→4.5

□ (RIR) '17년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(Rent Income Ratio)은 전국 17.0%(중위수)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('14년 9.36% →'16년 6.7% →'17년 6.4%) 등으로 '16년(18.1%)에 비해 줄어들었으며,

○ 수도권이 18.4%로 광역시(15.3%)와 도지역(15.0%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\* 평균값 기준으로는 '17년 RIR은 모든 지역에서 소폭 증가하였음  
(전국) '16년 21.4→'17년 21.8% (수도권) 24.6→24.7 (광역시) 16.9→17.5 (도) 15.1→15.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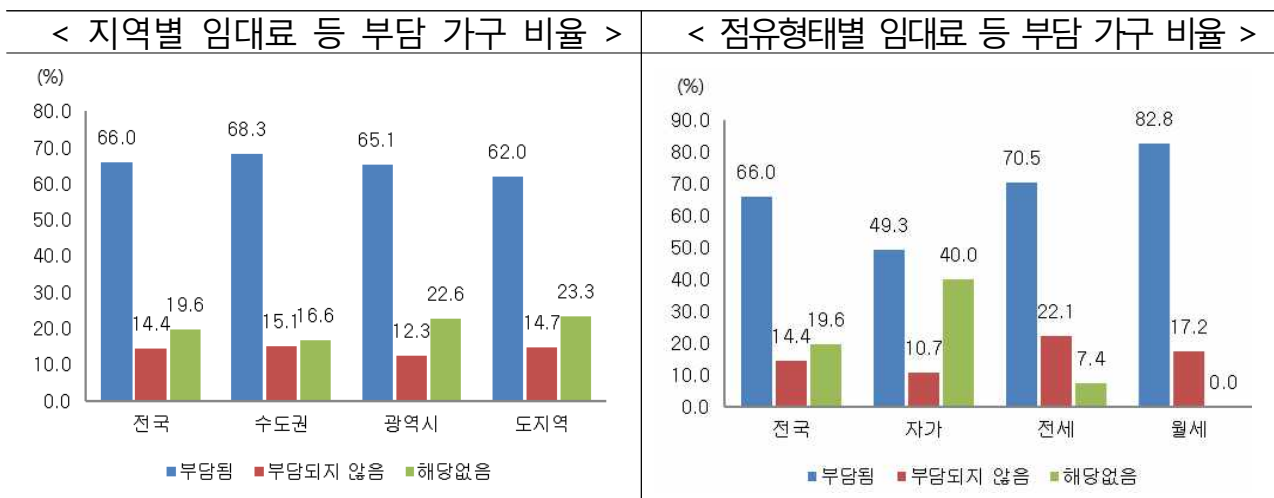
□ (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) '17년 6.8년으로 '14년 이후 주택마련 기간이 약 7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.

<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(단위:년) >

'06년	'08년	'10년	'12년	'14년	'16년	'17년
8.1	8.3	8.5	8.0	6.9	6.7	<b>6.8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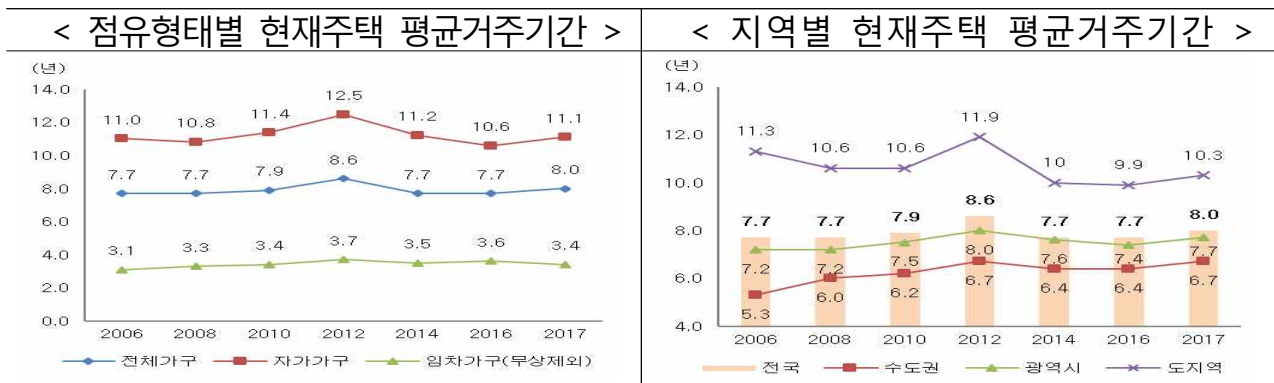
□ (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) 전체가구의 66.0%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

○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고, 점유 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

### 3. 주거이동성

- (평균 거주기간) '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으로 전년(7.7년)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.
- 자가가구는 11.1년인 반면, 임차가구(무상제외)는 3.4년에 불과하고,
- 지역별로는 도지역이 10.3년으로 지방광역시(7.7년), 수도권(6.7년)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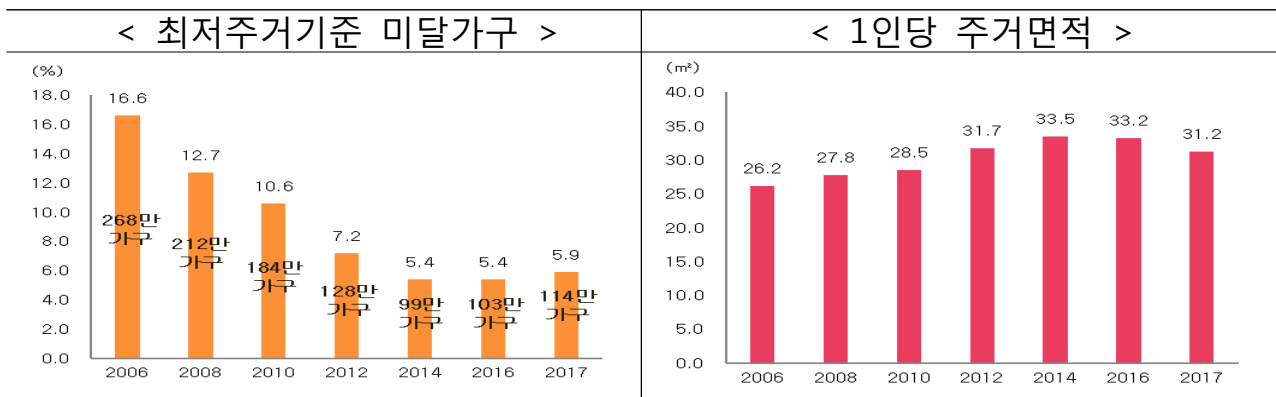
- (주거이동률)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5.9%로, '16년 36.9%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.
-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40.0%로 지방광역시(35.2%), 도지역(30.3%)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(이사이유)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자가주택 마련을 위해'(25.1%), '시설이나 설비 상향'(22.2%) 등의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<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(1순위) >



## 4. 주거수준

- 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) '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'14년부터 5%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'17년(5.9%, 114만 가구)에는 '16년(5.4%, 103만가구)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.
- (1인당 주거면적)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'06년 이후 지속 증가해 오다가 '12년 이후로 30㎡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'17년에는 31.2㎡로 나타났다.



### 《'17년 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개선이 주거수준에 미치는 영향》

-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
  - 1) 조사항목 중 공동주택의 '주거면적'을 종전의 조사대상자의 응답 자료에서 행정자료(건축물대장)로 대체 하고,
  - 2) '주택이외 거처 가구' 중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(비닐하우스, 판잣집, 컨테이너 등)를 분리하고 모집단(인구주택총조사)의 분포와 유사하게 하여 분석
- 응답자들이 주거면적을 공부상 면적보다 넓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'17년 조사에서는 '16년 조사보다 주거면적이 축소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였음

\* 주거전용면적 : '17년도 조사자 응답자료 70.2㎡ → 실제 행정자료 65.4㎡



□ (주거환경 만족도)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.97점(4점 만점)으로 '16년(2.93점)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.

○ 주거환경 만족도는 '08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었으며, '17년의 항목별 만족도는 '16년에 비해 소음문제, 편의시설, 문화시설, 공원·녹지 순으로 개선되었다.

< 항목별 주거환경 만족도 (4점 만점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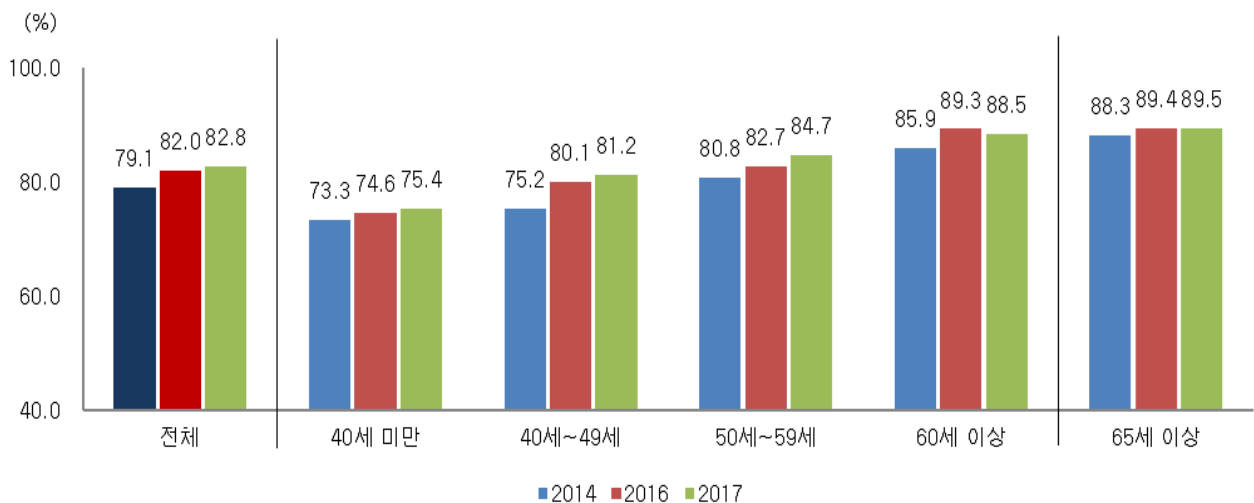
연도	편의 시설	의료 시설	공공 시설	문화 시설	공원 녹지	대중 교통	주차 시설	보행 안전	교육 환경	치안 문제	소음 문제	주변 청결	대기 오염	지역 유대	종합
'06	2.67	2.66	2.72	2.42	2.67	2.70	-	2.63	2.80	-	2.90	-	2.95	2.86	
'08	2.75	2.75	2.79	2.63	2.74	2.71	-	2.79	2.80	2.71	2.90	2.87	2.93	2.75	
'10	2.75	2.70	2.77	2.56	2.66	2.59	-	2.72	2.67	2.53	2.78	2.78	2.95	2.84	
'12	2.80	2.75	-	-	2.79	2.76	-	2.70	2.84	2.71	2.95	-	-	2.83	
'14	2.91	2.91	2.91	2.84	2.91	2.74	2.91	2.83	2.90	2.74	2.97	2.95	3.02	2.86	
'16	2.93	2.91	2.91	2.72	2.92	3.00	2.77	2.98	2.92	2.97	2.82	3.01	2.99	3.08	2.93
'17	2.99	2.96	2.98	2.78	2.98	3.01	2.80	3.02	2.97	3.03	2.91	3.03	3.00	3.08	2.97

## 5. 주거의식과 가치관

□ (내 집 마련 의식) '17년 기준 국민의 82.8%는 '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'고 생각하고 있으며 '14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.

○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가구주 연령별 주택보유의식 >



## 7. 주거지원 정책수요

- (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)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, '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'(30.1%)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
- 자가가구는 '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'(46.0%) 및 '주택개량·개보수 지원'(22.3%)을, 전세가구는 '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'(32.0%), '전세자금 대출지원'(27.3%), 월세가구는 '전세자금 대출지원'(26.6%), '월세보조금 지원'(25.4%)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(%) (1순위) >

구분	월세지원	전세자금 대출지원	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	주택개량 ·개보수 지원	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급	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	공공분양 주택공급	주거상담 ·정보 제공 등	기타	계	
전체	10.4	18.7	<b>30.1</b>	9.5	8.0	15.0	5.9	2.5	0.0	100.0	
전임대주택	자가	1.0	5.9	<b>46.0</b>	<b>22.3</b>	6.7	8.5	5.9	3.6	0.0	100.0
	전세	2.5	<b>27.3</b>	<b>32.0</b>	2.0	8.7	17.8	7.6	2.0	-	100.0
	월세	<b>25.4</b>	<b>26.6</b>	12.5	0.9	8.7	19.6	4.7	1.6	-	100.0

- (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) 임차가구의 57%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, 특히 저소득 임차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62.6%로 높게 나타났다.
-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(61.5%), 주거안정성(21.0%) 등으로 응답하였으며,
- 입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그 이유로 현재 주택에 만족(34.2%), 통근·통학거리(21.8%)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.

< '17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관련 사유(단위: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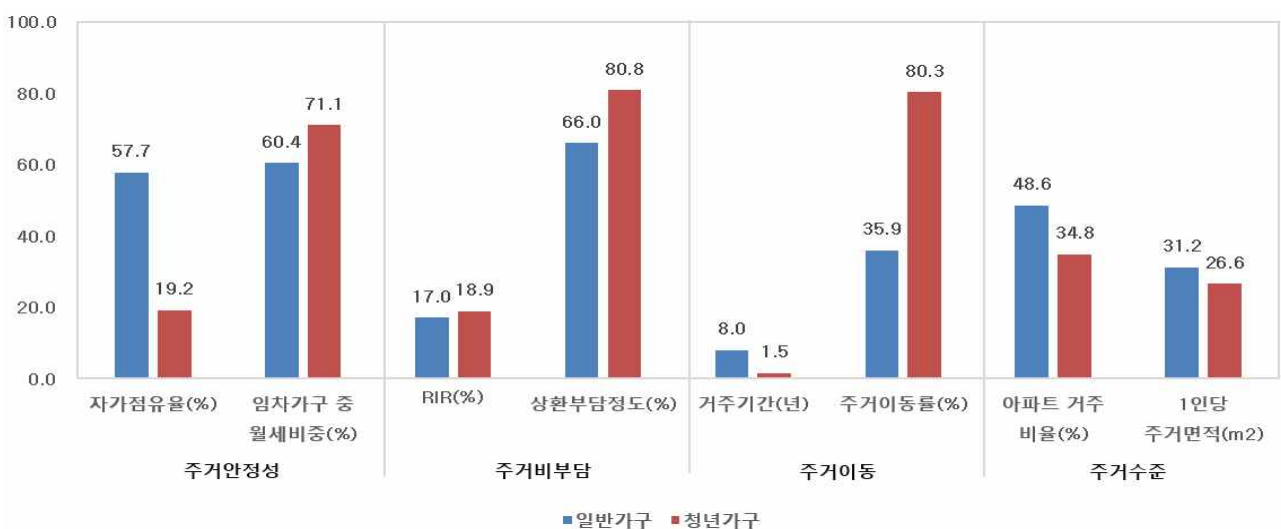
구분	입주의향 있음	입주의향 없음
1위	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 것 같아서(61.5%)	현재 주택에 만족(34.2%)
2위	이사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(21.0%)	직장·학교와의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(21.8%)
3위	시설이나 여건이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좋을 것 같아서(15.0%)	임대보증금, 임대료, 주거관리비 등이 지금보다 비쌀 것 같아서(13.5%)



## 9. 특성가구별 주거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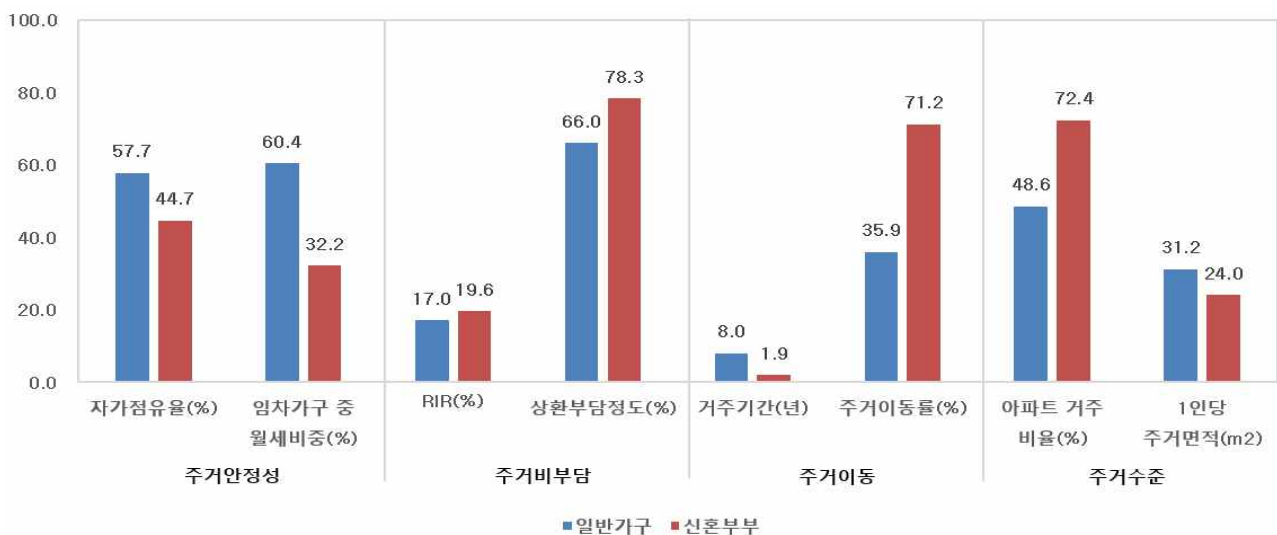
### < ① 청년가구 >

-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.2%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,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도 일반가구(60.4%)에 비해 매우 높은 71.1%로 나타났다.
-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  -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(RIR)은 18.9%로 일반가구(17.0%)에 비해 1.9%p 높고,
  -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.8%로 일반가구(66.0%)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(10.5%)과 지하·반지하·옥탑 거주비중(3.1%)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'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'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.1%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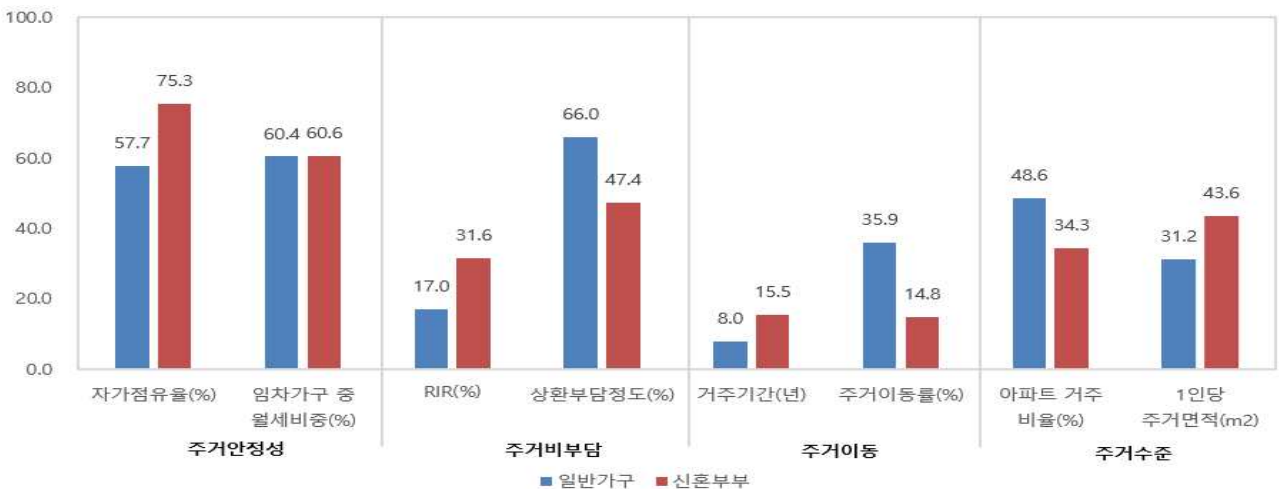
< ② 신혼부부가구 >

-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.7%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, 전월세 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.8%로 일반가구(39.6%)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- 한편 신혼부부는 일반가구(48.6%)에 비해 크게 높은 72.4%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  -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(RIR)은 19.6%,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은 78.3%로 일반가구(RIR 17%, 상환부담정도 66.0%)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'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'을 응답(43.4%) 하였다.
-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'주택마련·주거비·주택규모 등 주거문제'(31.2%)를 1위로 응답하여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혼부부가구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
  - 주거문제와 함께 고려되는 사항은 '양육·교육비용'(30.6%), '가계경제·고용상태'(19.1%) 등 순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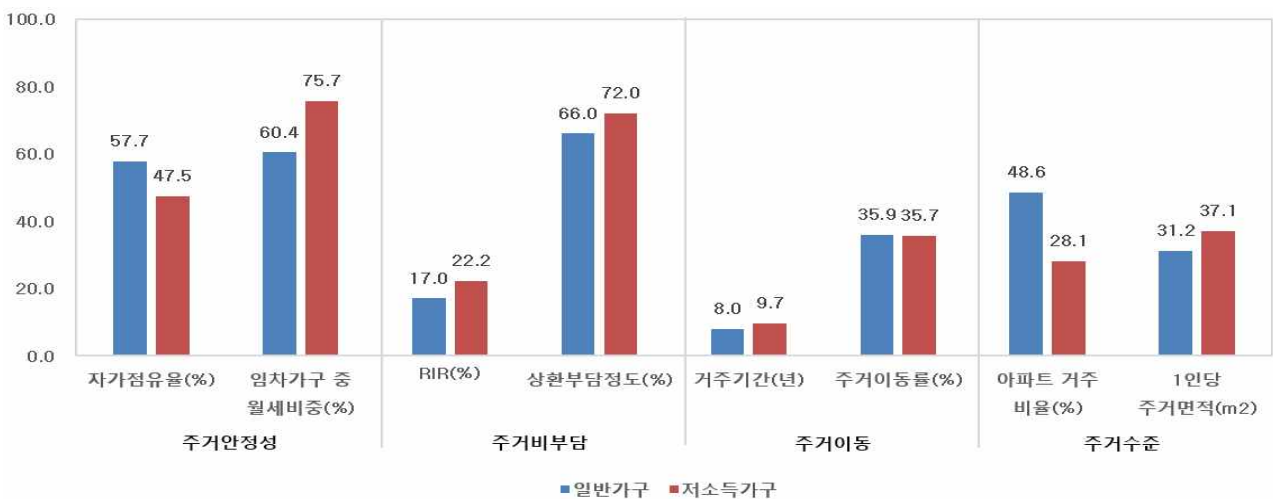
### < ③ 노인가구 >

-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(75.3%)이고, 절반이상이 단독주택(51.2%)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.6%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아(18.4%) 주택 개량·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(RIR)이 31.6%로 일반가구(17.0%)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, 자가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47.4%로 일반가구(66.0%)에 비해 18.6%p 낮게 나타났다.
-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'주택 개량·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'을 26.4%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,
-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개조 부분은 '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'(37.6%), '주택 내 응급 비상벨'(31.1%) 순으로 나타났다.
-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는 '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'가 5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, '경제적인 부담으로'도 33.5%로 높게 나타났다.



< ④ 저소득가구 >

-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.5%로 일반가구(57.7%)에 비해 낮으며,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이 75.7%로 높게 나타났다.
-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(RIR)이 22.2%로 일반가구(17.0%)에 비해 5.2%p 높게 나타났으며,
  -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72.0%로 일반가구(66.0%)에 비해 6.0%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한, 저소득가구는 1~2인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은 37.1m<sup>2</sup>으로 넓지만,
  - 가구당 주거면적은 53.8m<sup>2</sup>로 일반가구(65.4m<sup>2</sup>)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저소득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'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'(20.1%), '전세자금 대출지원'(19.6%), '월세 보조금 지원'(17.9%) 등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.



## 10.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

-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,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(일반가구)를 격년 단위로 실시해 왔으며,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- 또한,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금번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여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청년, 신혼부부, 노인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매년 파악할 예정이다.
-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'17년 5~9월까지 1: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- 「2017년 주거실태조사」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5.1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(www.stat.molit.go.kr)에,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(www.mdis.go.kr)에 품질점검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.

[붙임1]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

[붙임2] 2017년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표(특성가구)

[붙임3] 2017년 주거실태조사 개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 또는 국토연구원 강미나 박사, 김지혜 박사, 이건우 연구원(☎ 044-960-0349, 0331, 03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지 표 명		'06년	'08년	'10년	'12년	'14년	'16년	'17년	
주거 안정성	자가 점유율(%)	55.6	56.4	54.3	53.8	53.6	56.8	<b>57.7</b>	
	자가 보유율(%)	61.0	60.9	60.3	58.4	58.0	59.9	<b>61.1</b>	
	임차가구 중 전세(월세)비율(%)	전국	54.2 (45.8)	55.0 (45.0)	50.3 (49.7)	49.5 (50.5)	45.0 (55.0)	39.5 (60.5)	<b>39.6 (60.4)</b>
		수도권	62.1 (37.9)	62.7 (37.3)	57.1 (42.9)	55.9 (44.1)	53.9 (46.1)	46.7 (53.3)	<b>46.4 (53.6)</b>
	주거환경 만족도(4점 만점) <sup>1)</sup>	2.86	2.75	2.84	2.83 <sup>1)</sup>	2.86	2.93	<b>2.97</b>	
	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(년)	8.1	8.3	8.5	8.0	6.9	6.7	<b>6.8</b>	
주거비 부담	자가가구의 PIR(배) <sup>2)</sup>	4.2	4.3	4.3	5.1	4.7	5.6	<b>5.6</b>	
	임차가구의 RIR(%) <sup>3)4)</sup>	18.7	17.5	19.2	19.8	20.3	18.1	<b>17.0</b>	
주거이동성	평균 거주기간(년)	전체가구	7.7	7.7	7.9	8.6	7.7	7.7	<b>8.0</b>
		자가가구	11.0	10.8	11.4	12.5	11.2	10.6	<b>11.1</b>
		임차가구 <sup>5)</sup>	3.1	3.3	3.4	3.7	3.5	3.6	<b>3.4</b>
	주거이동률 (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%)	37.5	35.2	35.2	32.2	36.6	36.9	<b>35.9</b>	
주거수준	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(%)	16.6	12.7	10.6	7.2	5.4	5.4	<b>5.9</b>	
	1인당 주거면적(m <sup>2</sup> )	26.2	27.8	28.5	31.7	33.5	33.2	<b>31.2</b>	
주거의식과 가치관	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(%)	-	-	83.7	(72.8) <sup>6)</sup>	79.1	82.0	<b>82.8</b>	

주1) '12년도 주거환경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어, 다른 년도의 시계열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재계산('12년 5점 척도로는 3.50점)

주2) PIR은 주택가격의 중위수 / 가구 연소득의 중위수

주3) RIR은 월임대료의 중위수 /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

주4) 전월세전환율은 주택가격조사(국민은행) 및 월세동향조사(한국감정원)의 월세이율을 활용.

'06년 10월(0.99%), '08년 10월(0.98%), '10년 8월(0.96%)(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전국월세이율)

'12년 7월(0.87%), '14년 8월(0.78%), '16년 8월(0.56%), '17년 8월(0.53%)(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 월세이율)

주5) 임차가구에는 전세와 월세(보증금 있는 월세, 보증금 없는 월세, 사글세 및 연세)로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되며, 무상 거주가구는 제외

주6) '12년 '주택보유에 대한 의식' 은 다른 년도와 보기항목이 달라 직접 비교 곤란

('10, '14, '16, '17년도는 2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, '12년도는 5점 척도로 조사)



지 표 명		전체	청년	신혼부부	노인	저소득	
주거 안정성	자가 점유율(%)	57.7	19.2	44.7	75.3	47.5	
	자가 보유율(%)	61.1	21.1	47.9	77.4	49.3	
	임차가구 중 전세(월세)비율(%)	전국	39.6 (60.4)	28.9 (71.1)	67.8 (32.2)	39.4 (60.6)	24.3 (75.7)
		수도권	46.4 (53.6)	33.9 (66.1)	71.4 (28.6)	46.3 (53.7)	30.1 (69.9)
	아파트 거주비중(%)	48.6	34.8	72.4	34.3	28.1	
	주거환경 만족도(4점 만점) <sup>1)</sup>	2.97	2.99	2.99	2.91	2.88	
	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(년)	6.8	1.4	1.1	9.0	7.7	
주거비 부담	자가가구의 PIR(배) <sup>2)</sup>	5.6	5.0	5.2	10.4	8.3	
	임차가구의 RIR(%) <sup>3)4)</sup>	17.0	18.9	19.6	31.6	22.2	
주거이동성	평균 거주기간(년)	전체가구	8.0	1.5	1.9	15.5	9.7
		자가가구	11.1	2.3	2.3	18.0	15.5
		임차가구 <sup>5)</sup>	3.4	1.3	1.6	6.5	3.8
주거이동률 (최근 2년내 현재주택 거주가구 비율 %)		35.9	80.3	71.2	14.8	35.7	
주거수준	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(%)	5.9	10.5	3.3	5.3	10.1	
	1인당 주거면적(m <sup>2</sup> )	31.2	26.6	24.0	43.6	37.1	
주거의식과 가치관	주택 보유에 대한 의식(%)	82.8	70.7	83.4	89.5	78.5	

주1)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~만34세인 가구

주2)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지 5년이하, 여성배우자 나이가 만 49세 이하인 가구

주3)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

주4) 저소득층(1~4분위), 중소득층(5~8분위), 고소득층(9~10분위)

주5) PIR은 주택가격의 중위수 / 가구 연소득의 중위수

주6) RIR은 월임대료의 중위수 / 가구 월소득의 중위수

주7) 전월세전환율은 월세동향조사(한국감정원)의 월세이율을 활용. '17년 8월(0.53%)

주8) 임차가구에는 전세와 월세(보증금 있는 월세, 보증금 없는 월세, 사글세 및 연세)로 거주하는 가구가 포함되며, 무상 거주가구는 제외

주9) 청년가구,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가구주가 된 기간이 짧으므로 해석에 유의

- (통계종류) 조사통계(표본조사) \* 승인(협의)번호 제116031호
- (조사대상)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중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이들의 거처
- (조사주기) 매년('17년도 이후부터 매년 시행)
- (조사범위) 17개 시도(세종시 포함, 제주도 이외의 도서지역은 제외)
- (조사방법)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
- (조사기간) 사전조사 2017. 4. 17 ~ 4. 24.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면접원 교육 2017. 5. 10. ~ 5. 23.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본조사 2017. 5. 22. ~ 9. 29.
- (조사기관) 국토연구원, (주) 한국리서치
- (표본규모) 목표표본수 총 60,000가구(일반가구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효표본수 총 60,640가구(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101.1%)
- (표본추출틀)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, 신축아파트리스트 등
- (표본추출방법) 층화2단집락추출법을 적용(1차단위:조사구, 2차단위:가구)
- (상대표준오차 분석) 주택사용면적, 소득, 생활비, 주거비 등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전국의 경우는 1.5% 이내, 시도별 추정의 경우는 약 2~9%로 통계적으로 안정적 추정 가능
- (가중치 작성 절차) 각 표본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조정과정을 거쳐 산출